

청년일자리 실태와 대안



김군수*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kimks@gri.re.kr

1. 심각한 청년고용 실태

청년고용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총 취업자수는 2003년 22,139천명에서 2013년 25,066천명으로 10년간 2,927천명(13.2%) 증가하였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수는 동기간 4,606천명에서 3,793천명으로 10년간 813천명(17.7%)이나 감소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총 취업자수는 2003년 4,753천명에서 2013년 5,097천명으로 10년간 344천명(7.2%) 증가하였으나 청년층 취업자수는 동기간 1,167천명에서 881천명으로 10년간 286천명(24.5%)이나 감소하였다. 서울시의 감소폭은 전국 평균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 서울시 청년층의 취업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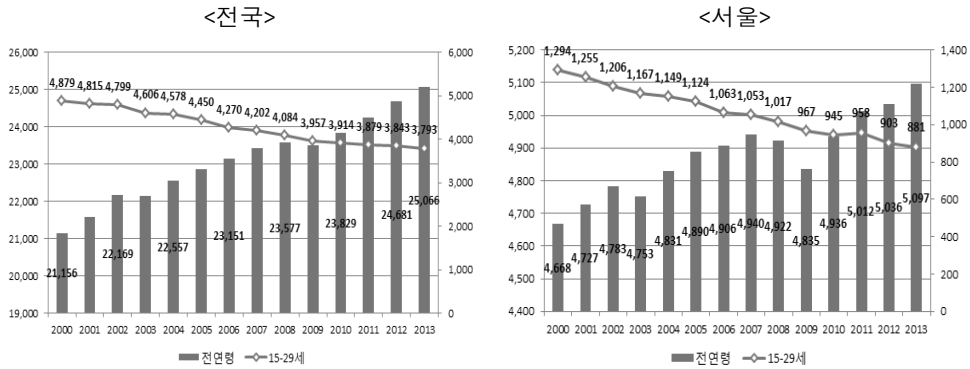
우리나라 전 연령 평균 고용률은 2003년 59.3%에서 2013년 59.5%로 10년간 0.2%p 소폭 상승하였으나 청년층의 고용률은 동기간 44.4%에서 39.7%로 4.7%p나 하락하였다. 청년 고용률은 OECD의 평균수준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서울시의 전 연령 평균 고용률은 2003년 59.2%에서 2013년 59.8%로 0.6%p 소폭 증가하였으나 청년층의 고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일본 쓰꾸바(筑波)대학 도시지역경제학 박사
- 청년일자리지점 : 복합지식산업센터(2014), 기로에 선 동아시아 경제(2014), 중견기업의 실태와 육성방안(2013) 등

용률은 동기간 48.1%에서 43.3%로 10년간 4.8%p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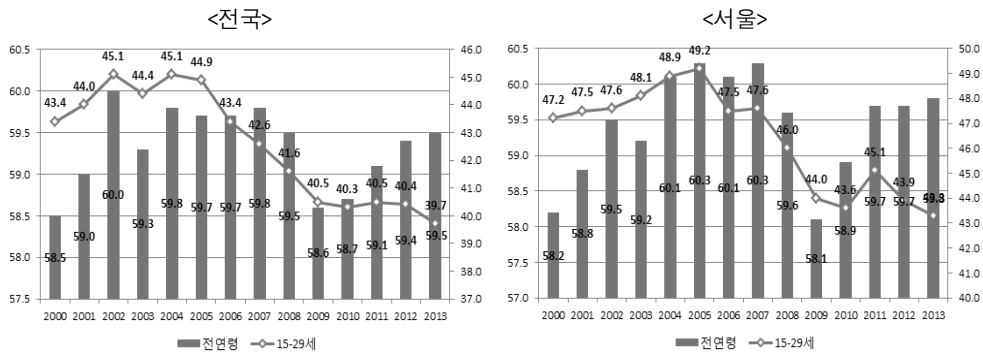
(단위 : 천명)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연령별 취업자』.

[그림 1] 연령별 취업자수 변화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연령별 경제활동인구』.

[그림 2] 연령별 고용률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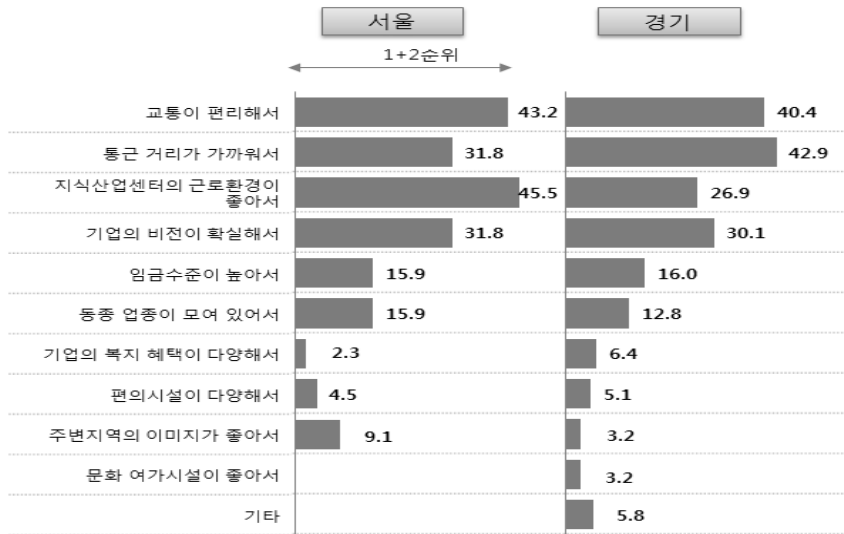
2. 청년고용 부진의 원인

청년고용의 부진은 첫째 일자리수요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2013년 전국기준으로 청년층의 실업자 중에서 52.7%는 일자리수요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¹⁾.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연령층은 4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소기업에서 채용을 희망하는 20대와 30대의 연령층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1) 김을식(2012). 『한국의 고용현황과 일자리 미스매치』, 경기개발연구원 에서 인용함.

둘째 청년고용의 부진은 연봉, 업종, 직종, 근무환경 등의 미스매치 때문에 발생된다. 전국기준으로 청년층의 실업자 중에서 47.3%는 일자리 미스매치로부터 기인한다. 경기개발연구원²⁾에 따르면, 중소기업체에서 4년제 대졸자의 평균 연봉은 2,184만원이고, 구직자가 희망하는 연봉수준은 3,299만원으로 약 1,100만원의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기업에서 채용을 희망하는 직무는 “기술/기능직”이 57.8%로 가장 많았으나, 구직자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직무는 “사무직”(50.3%)으로 나타나 직무 불일치가 발생한다. 또한 업종에서도 제조업 중에서는 첨단업종, 서비스업 중에서는 금융, 방송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선호한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은 청년층의 취업기피 요인으로 작용하여 근무환경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근로환경, 교통여건, 기업비전이 청년층의 주요 취업매력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텔리전트 빌딩 형태의 지식산업센터에 취업한 20-30대 청년층들은 서울의 경우 근로환경(45.5%), 교통의 편리(43.2%), 통근거리(31.8%), 기업의 비전(31.8%)을 가장 중요한 취업 이유로 응답하였다.



자료 : 한국은행 경기지역본부·경기개발연구원(2014.05). “지식산업센터 입지환경 및 취업환경에 관한 설문조사분석” .
 [그림 3] 지식산업센터에 취업한 이유(청년층 설문, %)

2) 김울식(2012). 『일자리창출의 난제 : 평행선을 달리는 중소기업과 청년』, 경기개발연구원 에서 인용함.

3. 청년이 선호하는 직종과 업종

청년층은 단순 기능직 및 노무직 관련 직종보다는 관리직, 전문직 및 사무직을 선호한다. 실제로 청년층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관리자·전문가’ 로의 취업 비중이 가장 높은 31.8%를 차지한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관리자·전문가’ 비중인 21.0%보다도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또한 ‘사무종사자’ 로의 취업 비중은 26.7%로 두 번째로 청년층 취업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반면에 전체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비중과 비교해 보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등의 저소득·육체노동 관련 직업의 청년층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당히 낮은 분포를 보인다.

[표 1] 전국의 전체취업자와 청년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비교(2013. 05, %)

구분	계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전체 취업자	100.0	21.0	16.6	22.0	6.3	20.7	13.3
청년층 취업자	100.0	31.8	26.7	20.1	1.0	13.5	6.9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별 취업현황을 보면, 청년층의 취업은 제조업보다 지식서비스업에 보다 많이 편중되어 있고, 제조업 중에서는 전자부품, 의약품, 의료정밀기기 업종 등 첨단제조업종에 취업이 편중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제조업 종사자 중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12.8%를 차지하고 있는 데, 특히 전자부품업종에 20.3%, 의약품업종에 19.1%, 의료정밀기기 업종에 16.0%를 차지하는 등 첨단제조업종에 청년층의 취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서울시는 제조업 종사자 중에서 20대의 비중은 13.5%로 전국 평균인 12.8% 보다 0.7%p 높은 편이다. 특히 의약품(23.2%)과 의료정밀기기(22.5%) 업종에서 청년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2] 제조업의 20대 종사자수 분포 (2012년 기준)

(단위 : %)

구분	전국	서울
제조업 평균	12.8	13.5
식료품 제조업	8.6	10.4
음료 제조업	9.4	11.6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9.1	12.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5	12.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8.3	15.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8.4	18.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1.3	16.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3.8	15.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7.5	9.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4.6	17.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9.1	23.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3.2	13.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7	12.1
1차 금속 제조업	12.3	5.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1	6.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0.3	17.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6.0	22.5
전기장비 제조업	14.6	1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7	1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4.0	5.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4.2	6.7
가구 제조업	8.0	11.5

자료 : 통계청(2012). 『중소기업실태조사』.

반면에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중에서 20대의 비중은 22.1%를 차지하여 제조업보다 9.3%p 높게 나타난다.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서 20대 취업비중이 높은 업종은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39.2%, “게임 소프트웨어 개

발 및 공급업” 33.3%, “영화, 비디오,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30.4%, “전문디자인업” 28.2%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즉 청년들이 선호하는 이들 업종들은 청년들에게 일 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³⁾는 첨단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 업체에게 비교적 저렴하게 입지를 제공해주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망한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어 청년층이 선호하는 전문직과 사무직 등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는 청년층의 일자리를 촉진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3> 전국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연령별 종사자수 분포 (2012년 기준)

(단위 :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지식기반서비스업	22.1	44.4	23.4	8.3	1.8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3.3	54.0	11.0	1.3	0.4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4.2	51.6	20.4	3.5	0.3
영화, 비디오,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30.4	46.0	19.1	3.9	0.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제작 관련서비스업	39.2	40.1	16.7	3.7	0.3
전기통신업	21.5	50.7	20.2	6.9	0.7
컴퓨터프로그램, 시스템통합및관리업	25.6	47.4	23.0	3.7	0.3
자료처리, 포털 및 기타인터넷정보매개 서비스업	25.2	48.5	21.6	3.9	0.8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21.0	56.3	18.1	4.2	0.4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20.2	41.2	26.2	10.8	1.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4.3	36.4	34.1	5.0	0.2
경영컨설팅업	18.3	42.0	25.2	13.1	1.4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7.3	38.8	25.0	13.8	5.1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18.4	38.3	26.6	12.4	4.3
전문디자인업	28.2	42.8	22.5	5.6	0.9
전시 및 행사 대행업	25.9	36.8	25.0	11.1	1.2
온라인 교육 학원	29.6	51.2	15.3	3.4	0.5

자료 : 통계청(2012). 『중소기업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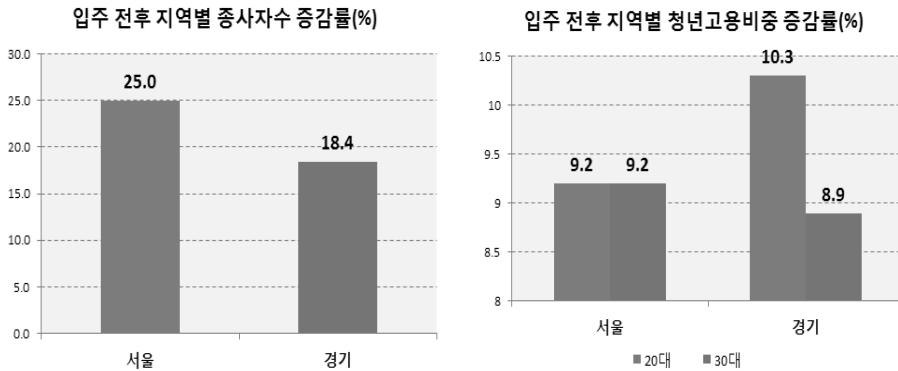
3)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정의된다.

4. 청년층의 미스매치 해소의 대안,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입주 전에 비해 20대와 30대 종사자의 고용비중이 증가하여 청년층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시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입주하기 전보다 종업원수가 평균 25.0%(3년 평균)나 증가하는 효과를 보인다. 서울시 전산업 종사자수가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간 약 8.7% 증가하였다는 점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의 총고용 증가율이 매우 빠른 가운데 20대와 30대 청년층의 고용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청년일자리 확대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입주하기 전보다 20대 청년층 고용비중이 9.2% 증가하였으며, 30대 고용비중도 9.2% 증가하였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이후 20-30대 청년고용 수급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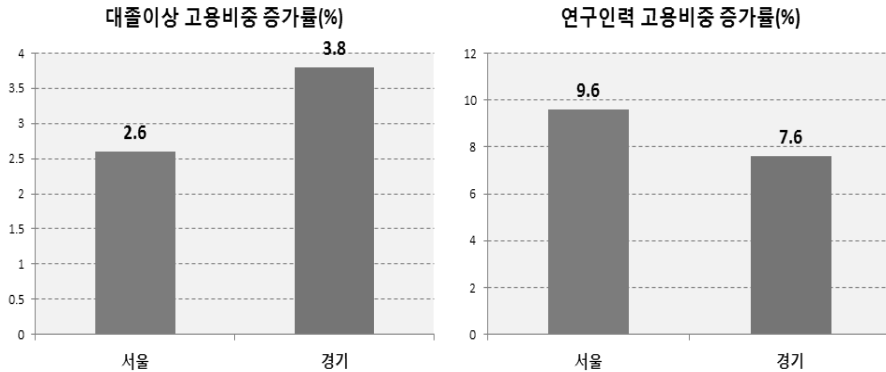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기지역본부·경기개발연구원(2014.05). “지식산업센터 입지환경 및 취업환경에 관한 설문조사분석” .

[그림 4] 지식산업센터 입주전후 기업별 청년고용 창출 효과

또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은 입주 전에 비해 대졸이상 고학력 고용과 연구개발직 고용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고급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입주하기 전보다 대졸이상 고용비중이 2.6%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직 고용비중은 9.6%나 증가하였다.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경기지역본부·경기개발연구원(2014.05). “지식산업센터 입지환경 및 취업환경에 관한 설문조사분석” .

[그림 5] 지식산업센터내 입주기업들의 고급일자리 창출 효과

따라서 지식산업센터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청년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지식산업센터는 청년일자리의 미스매치 원인인 업종, 직종, 근무환경 등에서의 구인-구직 간의 불일치를 어느 정도 해소하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군수(2014), “청년일자리거점 : 복합지식산업센터”, 경기개발연구원, 이슈&진단 제149호.
- 김을식외(2012). “한국의 고용현황과 일자리 미스매치”, 경기개발연구원, 이슈&진단 제49호.
- 김을식외(2012). “일자리창출의 난제 : 평행선을 달리는 중소기업과 청년”, 경기개발연구원, 이슈&진단 제75호.
- 한국은행 경기지역본부·경기개발연구원(2014.05). “지식산업센터 입지환경 및 취업환경에 관한 설문조사분석” .
- 통계청(2012). 『중소기업실태조사』.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